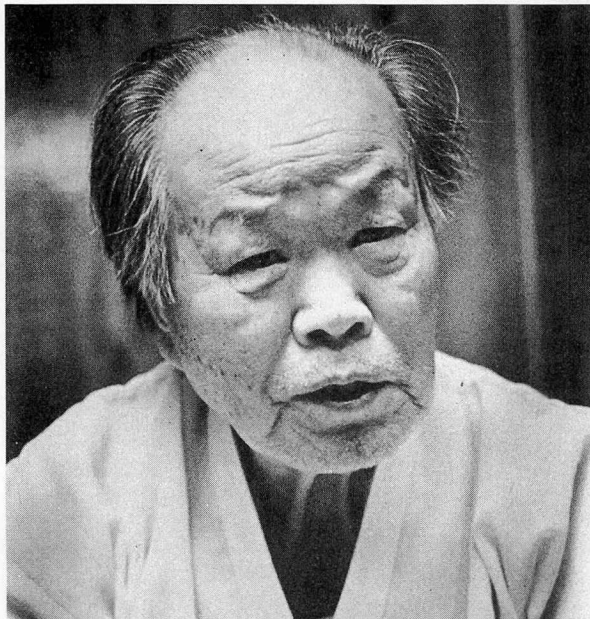


# 說話 채록에 바친 50년

개인전집 첫째권 「韓國口傳說話」낸 任哲宰翁



**일제때부터 모아온  
민간설화 등  
임석재옹이 전집으로  
정리하고 있는 자료는  
책으로 쳐서 20권이  
훨씬 넘는 분량이다.  
요즘 임옹은  
하루종일 이 일에만  
매달려 있다.**

김수남 사진

원로 민속학자 任哲宰翁(84)이 최근 자신의 학문세계를 정리하는 개인전집을 펴내기 시작했다.

2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任哲宰全集」 첫째 권으로 평민사에서 간행된 「韓國口傳說話—平安道篇 1」이 그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거의 저서를 내지 않던 임옹이 모처럼 老年의 열정을 기울인 勞作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전집에 실릴 구전설화 등의 자료가 대부분 미공개 자료일 것으로 예상돼, 후학들이 이에 거는 기대도 자못 크다.

우선 「전집」 제1권을 통해 선을 보인 것만 해도 이제는 채록이 불가능한 1930년대의 북한 지역에 전승되던 민간설화 등이어서, 「전집」이 예정대로 완간된다면 민속학계의 자료기근이 다소나마 해결될 전망이다. 사실 1970년대 이후 일종의 유행처럼 번진 민속학계의 필드 워크의 발길이 도서벽지에까지 닿게 되면서 최근들어 어떤 한계에 다다른 느낌마저 없지 않던 실정이라, 「임석재전집」의 출간은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1930년대 북한지역의 민간설화들

우리 민속학계의 제1세대라 할 수 있는 임석재옹이 구전설화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채록에 나선 것은 1931년부터 10년간 평북 宣川의 信聖중학에 재직 중일 때의 일이다. 당시 민속학 연구가 주로 문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임옹의 이러한 자료 채록작업은 상당히 선각적이었던 셈이다. 이후 50여년간 임옹이, 혹은 제자들의 방학 과제물을 통

해, 혹은 인근각처의 직접 답사를 통해 채록한 민간설화 등을 이제 와서 정리하고 보니, 책으로 묶으면 30권이 넘는 엄청난 분량이다. 임옹의 말로는 추리고 추린 게 그 정도란다.

“대충 정리해 보니까 내가 수집한 이야기가 3천종은 되는데, 각종마다 대개 서너개씩의 類話가 한데 따르기 마련이니까 이야기의 가짓수는 모두 만개 가량입니다. 이걸 원고지로 환산하면 한 이야기에 5매씩만 잡아도 모두 5만매, 책으로는 30권이 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엄선해서 전집에 수록할 작정입니다.”

수집도 수집이지만 그렇듯 방대한 양의 원고를 보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방과 전란의 와중에서 소중한 장서와 원고를 잃었던 경험을 한두번은 갖고 있음에 반해, 50여년 전의 원고를 온전히 보관해오고 있는 임옹의 경우는 차라리 예외적이다.

서울 양정중학 재직시 해방을 맞고,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로 전란을 겪었던 임옹 스스로는 “룩색 하나 짙어지고 그 안에 원고 넣어서 부산까지 피난갔지”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30여년간 살고 있는 서울 普門洞의 한옥에 쌓여 있는 원고더미를 보노라면 보관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병풍으로 가린 서재 한 귀퉁이에 원고를 담은 커다란 라면박스가 10여개는 쌓여 있다.

원고의 정리 역시 대단한 수고를 요하는 일이다.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던 것을 지역별, 연대별, 모티브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자면 온 방에 원고를 늘어 놓는 일이 다반사요, 그걸 다시 출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정서해야

하니 일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제작을 맡아하는 평민사 편집실무자측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구전설화의 기록 원칙상 그 당시 그 현장의 방언을 그대로 충실하게 살려야 하는 까닭에, 일일이 원문과 逐字대조해야 하는 교정상의 난점이 있다. 1년반의 작업 끝에 겨우 햇빛을 본 첫째권의 경우 5교까지 보았다고 한다.

## 민속학·심리학 논문과 동요도 포함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다. 첫째권 외에 2권(평안북도 편2), 3권(평안남도, 황해도편), 4권(함경남북도, 강원도편)의 원고가 이미 탈고되어 제작과정에 있고, 임옹이 지금 집필중에 있는 것은 제5권이 될 경기도편으로 현재 약 700매까지 쓰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안에 제5권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요즘은 오롯이 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임옹의 하루 평균 집필량은 40매 내외. 50여년간 묵혀오던 자료를 이제야 출간하는 ‘게으름과 주변없음’을 벌충이라도 하듯 ‘기분이 내키면’ 100매도 거뜬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고작 10매에 그치는 날도 많다.

20권 안팎으로 예상하는, 그래서 「전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설화, 민요, 무가 등 구비전승자료의 각 도별 정리가 완료되면 이어서 논문집을 엮어낼 작정이다.

이미 1939년에 라디오 강좌로 ‘조선의 설화’를 개설했던 임옹이 본격적인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듬해의 일로, 宋錫夏가 주동이 되고 孫晋泰, 鄭寅燮 등이 참여하여 1932년 결성됐던 朝鮮民俗學會의 학회지 「朝鮮民俗」 제3호를 통해서였다. 당시의 학회 사정상 日語로 게재됐던 이때의 논문이 견훤의 탄생설화 등에서 보이는 사람과 동물의 交婚설화를 분석한 「朝鮮의 異類交婚譚」이다. 이후 임옹은 자료 채록과 병행하여 채록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논문을 틈틈이 발표하는데, 「韓國巫俗研究序說」, 「韓國民俗」, 「女性을 중심으로 한 民譯說」, 「韓國巫俗과 古代文化」, 「韓國民俗學의 현황과 전망」 등이 있다. 특히 「韓國의 天地開闢神話」는 한국에는 천지개벽신화가 없다는 그때까지의 학계의 통설에 叙事巫歌의 분석으로 반론을 제기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민속학관계 논문과 더불어 심리학과 관계 논문도 이번 전집에 같이 모을 예정이다.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옹은 원

래 京城帝大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로, 이 방면의 연구업적도 민속학의 그것에 못지 않다. 해방 직후부터 50년 대말까지는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애초에 민간설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게 된 것은 심리학을 더 잘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민족의 심리를 아는 데 민간설화만큼 좋은 자료는 없다고 생각했죠. 말하자면 내게 있어서 민속학은 심리학의 보조학문이었다면, 어쩌다 보니 그만 민속학자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심리학자라는 본분을 잊은 적은 없어요.”

아울러, 흥미로운 것은 임옹이 3권의 동요집을 낸 바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을 전후하여 간행된 「날이 됐다」, 「봄아 어서 오나라」, 「씨를 뿌리자」 등에 실린 동요들도 이번 전집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동요집이니만큼 전문가의 삽화를 곁들이려고 하는데, 점찍어 둔 화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이 오가지 않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 외출 삼가며 집필에만 전념

50여년전 라디오강좌를 통해 당시의 청취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구수한 민간설화를 그대로 다시 방문자에게 들려줄 정도로 임옹의 기억력은 아직 섬세하다. 아마 그런 기억력이었기에 변변한 녹음기 하나 제대로 없던 시절에만 정도의 자료채록이 가능했을 것이다. 기력 또한 팔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해서 老益壯이란 말이 바로 임옹을 지칭하는 말 같다. 건강 유지를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임옹에게는 일이 곧 운동이다.

“구학회 일로 친지들이나 제자들이 뜬금없이 불러낼 때 외에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까울 지경입니다. 몇권이 될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서둘러 한 5년 안에 이 일을 끝내야죠. 예정보다 늦어져 가뜰이나 나 때문에 출판사에서 속들을 썩이는 모양이던데.”

소탈하게 웃으며 정원에서 조롱박 두개를 ‘기념으로’ 따 건네준다.

임옹은 요즘의 ‘민속 유행병’을 일컬어 ‘서울놈 흥시 맛보기’라고 비유한다. 이제 「임석재전집」의 완간을 기다려, 시골에서 서리 맞아 익은 진짜 흥시맛 같은 우리 구비문학의 참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철주 기자